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하나의 사물이나 유기적 조직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체성(Identity)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구기종목인 야구와 축구도 깊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일단 야구와 축구가 동시에 인기 있는 나라는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야구문화권은 야구가 주류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럽을 거점으로 성장해온 축구문화와 시스템은 유럽의 세계관을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골 결정력은 노력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물론 어느 종목이든 스포츠는 '천재'가 유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축구가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현란한 개인기에 유럽은 시스템으로 겨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야구는 게

야구와 축구 그리고 국가정체성

임 수가 많은 관계로 '일상의 스포츠'이다. 야구 천재들이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 장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야구는 스스로 변하고 관리(Well Organizing)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공부처럼 반복훈련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또한 적응의 스포츠이기때, 정신적인 면이 깊이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야구와 축구는 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축구는 열린 문화이다. 동네 팀도 세계적인 클럽팀과 겨룰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프로그래밍의 승강계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축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이 오픈 시스템과 '서민 친화적인' 요소 때문이다. 또한 축구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 3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도, 축구가 갖고 있는 정치성과 내셔널리즘 때문이다. 반면에 야구는 고비용 구조와 폐쇄성으로 인해 세계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내리그의 성공을 이루었다. 야구장주의와 엘리트시즘을 근간으로 하는 야구는 자본주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편이다. 게임 수가 많은 야구는 구조적으로 오

픈 시스템을 취하기 힘들다. 야구와 축구는 각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변역을 하지 않았다. 즉 자기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축구의 오픈 시스템이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친 유럽은 '친서민 정책'이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기회 평등과 분배, 증세는 유럽사민주의의 근간이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전통적으로 좌파정부가 득세했다. 반면에 야구가 득

세한 미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기에, 보수주의와 엘리트시즘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상이한 색깔을 가진 야구와 축구가 동시에 인기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떤 색깔과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와 우의 공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적 가치에만 함몰되어 공화(共和)적 가치는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공화적 가치는 무엇인가. 어원과 기원을 따지기 전에, 한마디로 '공공선(公共善)'에 대한 가치규정이다. 무릇 국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과,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하는 역사적 운명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지방으로 몰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현 정부는 이 나라가 '민주' 그리고 '공화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신종플루로 수능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해야

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진다. 광주·전남에서도 40개 시험장에서 4만1천266명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수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상당수 수험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상태에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대학입시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능을 망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신종플루의 공포를 떨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각 학교는 어제 예비소집일에 발열검사를 하고 확진 환자이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장의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 따라서 분리 시험실 감독교사는 물론 당국은 감염 수험생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들도 수능 당일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등 보건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보건 당국은 신종플루로 인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시험으로부터 해방감에 젖어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는 등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시험 후 수험생 생활지도에 예년보다 더 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순간 실수로 수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당국은 수능시험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하고 수험생들도 수험 요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 수능에서 수험생들 건투를 빌다.

'2014년 광주인구 감소' 대책 서둘러야

광주시 인구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시가 펴낸 '2009 시정 백서'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013년 145만2천189명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과 수도권 등지로의 인구유출로 광주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2014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2018년과 비교해서도 4년이나 빠르다. 광주와 동일 경제권인 전남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절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물론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인구 감소는 광주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 및 투자 감소는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

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려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미래 청사진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교통망 구축 계획도 인구 감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 급감에 따른 택시 지구 개발 사업 축소와 초·중·고 및 대학의 정원 조정 역시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다. 인구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교육비 해소나 보육시설 신설 등 출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충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및 정책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법을 범국가적 의제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 당장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인구 활용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국토균형개발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준엽.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우리 몸 어디 한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활동을 잘하려면 관절이 건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려면 관절이 건강해야

기고 이종현. 내년 10월 영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열릴 예정인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대회유치에서부터 불합리한 계약과 밀실행정 시비, 소요 사업비 확보, 관련법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사연도 많았지만 이제 가닥이 정리된 느낌이다. 과다한 개최권료와 막대한 투자비용 전남도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며, 도의회 또한 충분한 검토

할인·이벤트 당첨 전화, 보이스피싱 주의를. 며칠 전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한 남자가 날더러 경품에 당첨됐다며 카드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쪽에서 자신은 00레저 특관팀 아무개 팀장인데 19만원만 결제하면 무료속박권 10장과, 무료통화권 매월 5만 원 한도로 10달간 쓸 수 있는 ID를 발급해서 내 휴대폰에 충전시켜 줄 거라는 안내 멘트를 해줬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으로 통화권만 잘 써도 믿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제를 하려고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

F1대회 준비 여유 부릴 시간없다. 광지 등을 관망하고 장기간 머물며 돈을 쓸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F1경기대회를 주제로 하는 캐릭터, 기념품 등을 조기에 개발해 산업화하고 이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나코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기존 도심도로를 활용하는 대회가 아니라 별도의 경기장을 건립하여 대회를 치르는 만큼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치르면서 광주를 비롯한 8개 시도에 건립했던 축구전용 경기장 대부분이 매년 막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타산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 대규모 국제행사인데도 그동안의 우려곡절로 인해 정상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다. 내년 10월 15일 지축을 흔드는 웅장한 광음을 울리며 출발할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자동차 대회가 전남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전 도민의 역할을 함께 모아갈 것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

밀렵꾼 야생동물 잡아 농장에 판매... 엄중처벌해야. 며칠 전에 가족들 보약을 해줄 요량으로 지방의 사슴농장에 갔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밀렵꾼들과 판매책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사슴농장 같은데 갖다주고 다시 식당이나 건강 보신원집에다 판다는 것이다. 즉 동물을 밀렵한 사냥꾼들이 밀렵으로 잡은 동물을 농장에서 사육시킨뒤로 돈감시킴 연무도 의심을 안하거 때문은 밀렵동물 처리가 아주 쉽다는 얘기였다.

無等鼓. 동·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현지에서 벌어진 '도미노 쓰러뜨리기'는 축제 그 자체였다.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포츠담 광장까지 1.5km 구간에 늘어선 높이 2.5m의 도미노 1천 개가 넘어지는 40분 동안 독일인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막는 장벽이 또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불록을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도미노 게임'의 뿌리는 중국에 닿아있다. 기원전 300년경 마작처럼 생긴 카드도 하던 게임이 18세기 유럽에 전파됐고, 이것이 불록을 세우고 쓰러뜨리는 현대식 놀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흥행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 게임을 하는 동안 리더십, 창의력, 협동심, 집중력, 인내심, 체력 등을 기를 수 있는데다 재미까지 있다. 요령은 최소한 가한 예 나치가 끝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도미노는 이런 이유로 게임뿐 아니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